

오늘의 기사판

1318 해피존 '웃음 滿·땅'개소식

19일) ▲전남 중남부권 발전계획 수립 공청회=오전 10시 장흥군청 상황실. 김중일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중남부권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 ▲전통미술문화상품 전시관 착공식=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중흥 2동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건설 현장. 국비 10억·시비 7천500만원 등 11억원을 들여 지상 4층(연면적 241평)건물을 오는 2007년 6월까지 준공 예정. 700점의 미술문화상품 전시 및 미용실 운영. ▲1318 해피존 '웃음 滿·땅'개소식=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구 중앙초교. 빈곤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해 학습·정보·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로, 이용교 전 한

국청소년복지화회장이 '곡성의 꿈 소년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 가족문화마당 등 문화축제 공연. (20일) ▲제 6회 전남도 여성 PC이용 경진대회=오전 9시30분 목포대 정보종합센터. 전남도내 정보교육 받은 여성 104명 참가 예정. ▲광주시 장애인 송년의 날 행사=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체육관. ▲송파 이규형 개인전=21일부터 27일까지 대동갤러리. 삼락 서예원 이규형 원장의 서예 40년 결산전. ▲빛고을 사진회 발표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기차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자유시간=23일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전시관. 전시회 기획동아리 '자유시간'의 창립 기념전. ▲환경과 자연 미술제=27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광주시 환경미술협회원들의 정기전. ▲광주·전남 문화협회전=20일까지 매트르 갤러리. 문인화 116점 전시. ▲아트그룹 엘레멘(L.M.N) 창립기념전=20일까지 대동갤러리. 조선대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 ▲박익정전=12월31일까지 고희도화현미술관. 도판화(陶板畫·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제 13회 여수시립국악단 정기공연=19일(화) 오후 7시 여수 시민회관. '박차여라 여수여,

나가자 세계로'라는 주제로 대취타·가야금 병창·판소리·전통무용과 관현악 등 공연.

역사속의 오늘

-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출간(1843)
▲윤봉길, 일본 오사카 형무소에서 순국(1932)
▲안도서 정거여객선 일진호가 돌풍으로 전복, 34명 익사(1961)
▲드골,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1965)
▲대학입시예비고사 첫 실시(1968)
▲중앙정보부를 81년 1월 1일부터 국가 안전기획부로 개칭키로 결정(1980)
▲영국과 중국, 홍콩반환협정에 조인(1984)
▲국회,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의결(1995)
▲순산 캄보디아 전 총리 사망 (2000)
▲제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2002)

뉴스퀴즈

43.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도하 아시아인 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58개·은 53개·동 82개를 획득, 일본(금 50·은 71·동 77)을 제치고 당초 목표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종전 대회보다 메달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같은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종합 순위는 몇 위인가?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 불행중 다행
어떤 남자가 엉덩이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왔다. 의사 : "아니, 어쩌다가 이런곳을 다치게 되셨죠?" 남자 : "이거 부끄러운데" "어쨌든 제 여자친구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급한 김에 거실 바닥에서 사랑을 즐겼죠. 아,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있던 샹들리에가 제 엉덩이에 떨어져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의사 : "그것 참 불행중 다행이군요!" "엉덩이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머리위로 떨어졌더라면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남자 : "맞아요, 정말 불행중 다행이죠?" "그놈의 샹들리에가 30초만 일찍 떨어졌어도 제머리는 아마 박살이 났을 겁니다"

■ 얼마나 무감각래
저팔게가 화장실에 불일보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여자처럼 앉아서 불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웃기는 일이라 한참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이봐요, 도대체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거요?, 남자가 말이야" 그러자 사오정 왈. "아니, 내가 팔이 아파서 병원엔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거운 것은 절대로 들지 말라고해서요"



출입금지 (디자이너사이드)

■ 할머니들의 미국여행
할머니 두 분이 미국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구경한 얘기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었다. "미국이 정말 재미는 있더구만" "그러, 근데 그중에서도 그대두 개넌(그랜드 캐년)이 제일 불만했어" "아니여, 뒤질년들(디즈니 랜드)이 더 재미있었던답게"

Jeju 2nd Jeonseonggi 2bo (10-29)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9x9 board with numbered stones and a legend for black and white pieces.

Jeju 2nd Jeonseonggi 2bo (10-29)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9x9 board with numbered stones and a legend for black and white pieces.

Baduk So-sik (Baduk News)
광주 K1XX, 비독리극 정상 포효
광주 K1XX가 한국바둑리그 정상에 우뚝섰다. K1XX는 지난 16일~17일 열린 2006 한국바둑리그 폐선인 결정전에서 경기 한계임을 2-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국바둑리그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한 K1XX는 2억5천만원의 우승상금을 거머쥐었다. 또 내년 1월 바둑보급을 겸한 동남아시아 투어를 지원받게 됐다. 정규리그 4위에서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던 경기 한계 임은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바둑리그 원년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 (음 10월 29일 壬午)
子 36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48년생 불면이면 손에 휘둘린다. 60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 72년생 직업과 돈에 조심을 해야 한다. 84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1, 31
丑 37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 49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1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 목 관절이 불편하다. 7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나 자만은 하지마라. 85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18, 43
寅 38년생 재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50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2년생 누름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74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4, 45
卯 3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51년생 인생은 지금부터이니 뜻을 부려서 행동하라. 63년생 길보다 흙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하라. 75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한다. 행운의 숫자 : 06, 35
辰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도화기가 재발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4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2, 32
巳 41년생 신재 불면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5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늦을수록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23, 44
午 42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들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54년생 상황이 따라서 뜻밖의 재물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78년생 이상의 만남도 좋은 계획을 세워라. 행운의 숫자 : 10, 28
未 43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55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은 오히려 모두가 득이 된다. 67년생 개인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79년생 공술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22, 26
申 44년생 애사가 생길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6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 68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 행운의 숫자 : 13, 43
酉 45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부자로 생각하라. 57년생 부모 황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필승의 각오로 추진하라. 81년생 소탐대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를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9, 42
戌 46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지면 끝내는 기쁨이다. 58년생 어부지기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70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82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 행운의 숫자 : 16, 20
亥 47년생 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 59년생 일실일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는구나.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구리는 자신이.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신에게 이 더 중요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4, 41

From what I understand
제가 알기로는
A: When is Dong-A Academy relocating?
B: From what I understand, The academy will be moving in January.
A: Where is the new office?
B: Not far. About 60 meters north of here in the entrance of Art street.
A: 동아학원이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B: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이전할 것입니다
A: 새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B: 멀지 않습니다. 여기 예술의 거리 입구 여기에서 북쪽으로 6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relocate : 새 장소로 옮기다
- when... + be+ing : 언제 ...할 것인지?
about + 숫자 : 약 ~
Where is : 어디에 ~인가?
- Where is your school? 당신의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 Where is the National Library? 국립도서관은 어디에 있는가?

物は考えようだね
'생각하기 나름'이군
A: ずいぶん、立派(りっぱ)な家具(かぐ)が捨(す)ててあるわ、傷(きず)もないし、まだまだ使(つか)えそうなのに。
B: 新(あたらしい)ものに買(か)い替(か)えらんだらうね。もったいないことするね。
A: '物(もの)は考えよう'かも知れないけど、經濟(けいぎ)の(けいぎ)に苦(くる)しくて、狭(ひ)いところに引(ひ)っ越(こ)すので、納(な)まらないんじゃない?
B: うん、まあ、'物(もの)は考えよう'だね。
A: 아주 훌륭한 가구가 버려져 있어. 흠집도 없고,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 새것으로 바꾸는 거겠지, 아깝구나.
A: '생각하기 나름'이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조들려서 좁은 곳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
B: 응, 뭐, '생각하기 나름'이군...
본보 12월 18일자 '오하이오 니혼고' 내용 중 '堂(どうとう)'은 '堂(どうとう) :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熱門凡
인기 있는, 유행하는
A 这么多人都想成为专业的?
B 是啊! 这是热门行业啊!
A 听说最近财会专业的毕业生很受欢迎。
B 可不是嘛!
A 你觉得这个职业怎么样?
B 哎呀, 这个职业挺有意思的!
A 这个职业发展前景怎么样?
B 挺好的。
회계 (hoikei) : 회계
熱門凡 (hot trend) : 인기 있는

한자 이야기 <418>
葛藤 (갈등)
취갈, 등나무 등
갈(葛)은 초(艸)+갈(曷 : 물기가 없다)로, 줄기 속이 말라서 덩굴 모양이며 잘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 식물이다. 등(藤)은 초(艸)+등(藤) : 휘면서 오르다)으로 이루어졌다.
갈등(葛藤)은 험명굴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견해나 주장·이해 등이 서로 뒤얽혀 풀기 어렵게 된 상태를 이다. 불교(佛敎)에서는 마음의 번민(煩)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고, 북한에서는 우리말 표현으로 '마음 다툼'이라고도 부른다.
갈등의 대표적 예는 개인의 심리적(心理的) 갈등과, 노사(勞使)간의 입장 차이에서 생기는 노사갈등, 또 가족사이의 부부(夫婦)갈등·고부(姑婦)갈등 등이 있다. 어떠한 갈등이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필요한 자세는 서로 대립하는 욕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함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갈등을 풀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에 이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즉 갈등과정에서 생기는 자신의 욕구(欲求)와 집착(執着)을 재빨리 찾아내는 일이다. 그것이 갈등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